

대정 호근무르

정좌수의 부인이

남펜네 부배간 정리는

아니무어도 유태를 ?져

아방눈에 골리 나고

어멍눈에 시찌 나.

귀양정배를 보내멍

“어서 느 가고픈대로 가라”

호난,

“어딜 가린!” 호연

나산 게,

검은오름 두신무들에

어질 호연,

애긴 난는 게

훈술머지로

호나, 두개, 일곱 갤 낳고,

그 애길 업을 수라 엊어.

진군지에 간 꼭 걷언

업고 안고 걸루고 호난,

이젠, 일곱 애길

질률 수라 엊어.

“어떻 질루런!” 호연,

“무을 무을마다

만민즈손에

서천제민 공연을 받자”

호연,

민 츄지, 무을 츄지,

호적 추지, 장적 추지,

인물도생책 추지 흐여,

“큰 아들랑

어딜, 이 애길 보내리?”

생각흐단,

괴수풀 삼백관 산신대왕으로

보내고,

셋아들은 맹월 종구실

고완이 본향으로 추질 보내고,

말줏아들은 영역 흐고 똑똑 흐여

요왕황주 요왕태주로 보내여

용궁을 추지 흐되,

인간백성이

아이 어룬을 골리지 못 흐니

장적추지 인물 도성책 추질

흐고,

맹월 삼문 읍중 상교 상청추지

호적문을 추지,

양반, 중인, 하인을 다 골리잡은

문세를 잡고,

안으드레 족은또 닉쳇 아들은

올라사민 하원당

처가부처는 상가왓당 술일한집.

족은 말줏아들은

널개 큰당알로 좌정훈 축일한집.

이 할으방은,

훈디 사는 할망이

닉발탄 걸 먹으난

“추접 흐다. 흐연,

손두물 머리로 가 좌정^흐니

용궁또롭서

가는 선, 오는 선 추지^흐고.

그영^흐난 이 할망은

넓개 큰당한집이 됩네다.

“큰뜰애긴 어딜 가린?”^흐난,

당멀 육꿀을 추지^흐연

허릿궁할망으로 좌정^흐고,

호적 장적 인물 도성책

추지^흐 토지본향.

셋뜰애긴 상명 느지리

캐인터 추지^흐고,

족은뜰은 가지갈란 조수물,

낙천은 매앗인밭.

매족은뜰은 가지갈라

한개 족은당에 좌정^흐였수다.

제일 매 3일, 7일, 13일, 17일,

23일, 27일.

<한경면 고산리 여무 71세 김기연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57-559.